

마주 보다

1 세기에 예수(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약성경을 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히브리 구약성경인 타나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타나흐의 본문을 인용하거나 참조한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는, 인용 구절들, 특히 히브리 선지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많습니다. 히브리 선지서의 맥락을 무시한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 1:7 –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다니엘 7:13** 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찌른 것은 **스가랴 12:10** 을 참조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것은 **스가랴 12:12** 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구절에서 요한은 애곡을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의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족속의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주어진 예언을 지구적으로 보편화합니다. 예언을 폐하지 않고 그 예언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말한 것 역시 히브리 선지서 중 하나를 참조한 것입니다.

사 52:8-9 –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요한이 이사야를 인용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예수)께서 어떻게, 왜 돌아오시는지에 대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문자적일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분을 볼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구름 속에

표류한 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플레스너 보고서

다비드 벤 구리온 총리는 1952 년에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가운데 분열된 세속 유대인과 종교 유대인 간에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으로 (“하존 이쉬”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랍비 카렐리쯔(Karelitz)를 만났습니다. 하존 이쉬(Chazon Ish)는 그에게 탈무드의 비유 하나를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빈 마차와 가득 실은 마차가 만나면 빈 마차는 가득 찬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속적인 국가는 종교 유대인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은 후 벤 구리온 총리는 “토라 연구를 전문 기술로 하는” 400 여 명의 예쉬바 학생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쉬바 학생들의 군복무 면제는 삼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란이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병역 면제자들의 수는 매년 수천 명 단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끊임없는 안보 위협 때문에 주류 이스라엘인들은 이중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18 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것과 국방비를 충당할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나머지 국민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기 힘들 정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 통계에 의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과 무슬림 아랍인들 (둘 다 군복무를 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든 큰 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이 주류 이스라엘인들보다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 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현재 대략 주류 세속 이스라엘인과 현대 종교 유대인(병역

및 납세 의무를 지는)에서 7만 5천 명, 무슬림 아랍인에서 4만 명, 초정통 유대인에서 2만 5천 명입니다. 12년 후에 이 그룹은 징집 연령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하도록 카디마당 소속의 크네셀 의원 요하난 플레스너(Yohanan Plesner)를 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세속인들과 종교인들 간의 갈등은 또 다시 고조되었고 연립정부 해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초정통 유대인들이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납세 인력으로 편입되도록 재교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케냐 그리스도인 학살

컴패스 다이렉트 뉴스(Compass Direct News)는 케냐에서 총과 수류탄 공격으로 일요일에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 최소 17명이 죽고 75명 이상 부상당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교회 건물에서 탈출하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이 두 공격은 소말리아 국경에서 서쪽으로 120마일 정도 떨어진 도청 소재지 가리사(Garissa)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공격들에 대한 혐의는 즉각 이슬람 무력 단체인 알 샤바아브(al Shabaab)에 떨어졌는데, 이들은 소말리아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이스라엘 인권운동단체는 한 어린 팔레스타인 소년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이스라엘 국경수비대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비난 받을 행동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놀랍다고 봐야 할지

아닐지, 엉덩이를 차는 비디오가 케냐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한 사건보다 국제 미디어에서 더 많이 다뤄졌습니다.

엘라브 컨퍼런스

릭과 패티(Rick & Patti Ridings) 부부가 인도하고 있는 수칼 할렐(Succat Hallel)의 후원으로 올해에도 개최되는 이스라엘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인 엘라브(Elav)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찬양팀과 강사들과 운영 요원들을 위해, 그리고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돌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냐의 희년

1962 년에 첫 기독교 시온주의 단체가 이스라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2012 년은 그들의 사역이 50 년 되는 희년입니다. 그들 중에는 야드 하쉬모나(Yad Hashmonah) 메시아닉 공동체 설립자 중 한 명인, 핀란드 출신의 존귀한 그리스도인 아냐(Anyah)가 있습니다. 올해 80 세인 아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육체 노동을 하러 나가고 있고, 저희 찬양과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냐는 120cm 가 채 안 되는 작은 키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거인입니다. 우리는 아냐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합니다.